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노동 이슈, 갈등보다 합의 필요 독수리처럼 높이 보고 대안 제시”

조주현 중소기업연구원장, 간담회

“1년간 정책 목소리 키워 위상회복
ESG·AI 등 정책의 대응력 높여
향후 글로벌 협업 확대 등 추진”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확립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실행) 매뉴얼을 통해 (기업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선 갈등보다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급변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혁신’과 ‘성장’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은 구조 전환이나 혁신 전환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상유지를 돕기위해서다. (지원하는 것은) 경영안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부를 창출하기위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안전’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신뢰자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잘 만들면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탄력성 있게 만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이자 공공기관인 중기연구원 원장 자리에 지난해 9월6일 취임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ESG·AI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AI·스마트제조·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미 관세·탄소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성과 기반 인사·인센티브 제도 확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중요한 주체여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외부와) 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표하는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이슈’ 포커스’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이슈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정책 씽크탱크가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보면서도 현장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제주 수산물 기업 해외시장 진출 촉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현장 간담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제주에서 지역 수산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산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전용찬 수협 제주지역금융본부장, 이호성 제주 수산물수출협회 회장(올래씨푸드 대표 이사) 등 지역 관계자와 제주 수산물 기업 6개사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 참

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3년 말 체결한 ‘중진공·제주도·수협은행 간 도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파악과 지속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업무협약 성과보고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제도 소개 ▲수출기업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및 정책 제언 논의 등이다.

특히, 설비투자 확대, 신남방 수출시장 개척, 홍보 콘텐츠 제작과 프로모션 행사 지원 등 수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승호 기자

효성-다임러트럭, ‘스타트럭코리아’ 출범

동근태·안토니오 란다조 2인 체제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에프엠케이(FMK)와 세계 최대 상용차 제조사 다임러트럭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스타트럭코리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효성그룹의 국내 수입차 시장 운영 노하우와 다임러트럭이 지닌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결합해 ‘안전·혁신·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통합 비즈니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명인 ‘스타트럭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과 혁신을 상징하는 ‘별’을 계승하는 동시에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드라이빙 더 퓨처, 파워링 코리아’로 미래형 모빌



안토니오 란다조 스타트럭코리아 CEO(왼쪽), 동근태 스타트럭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리티를 선도하는 혁신과 고객 신뢰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타트럭코리아는 에프엠케이 출신의 동근태 대표이사와 기존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안토니오 란다조 CEO(최고경영자) 체제로 운영된다.

/차상근 기자 sko8472@

이천 ‘시몬스 테라스’ 7년간 160만명 방문

지역사회와 상생 ‘랜드마크’ 자리매김

경기 이천에 있는 핫플레이스 ‘시몬스 테라스’에 7년간 총 160만명이 다녀갔다. 인스타그램 ‘시몬스 테라스’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는 12만 4000건을 넘어섰다.

2일 시몬스에 따르면 2018년 9월 이천시 모가면 시몬스팩토리움내 4736㎡ 부지에 문을 연 시몬스테라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적극 실천하며 지역 랜드마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몬스 테라스는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ESG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과 파머스 마켓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지역 융합 축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 알렸다

폴란드 ‘MSPO 2025’ 참가

현대위아가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5’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현지 시각)까지 열리는 MSPO에는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한 36개국에서 7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유럽에서 개최하는 방산 전시회에 첫 단독부스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전시했다.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란 기존 화포를 경량화하고, 전술차량에 탑재한 화력체계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실물로 선보인 ‘경량화 105mm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이 자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기존 제품보다 사거리와 기동력이 향상됐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모태펀드 1.1조 R&D에 2.2조 투입

**내년예산 16.8조… 올해비 10.5%↑
소상공인 230만명에 25만원 바우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편성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가장 많은 2조195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금액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 늘어난 규모다.

우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모태펀드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투자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458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틱스 방식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틱스)에 6684억원이, 투·융자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틱스)에 2924억원이 배치됐다.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도 1818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총 5790억원을 배정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새 명칭으로 연매출 1억4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 공공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소상공인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에는 3조362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과 취·창업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올해 본예산보다 84.9% 늘어난 4366억원을 투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편성한 예산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